

(사) 한국불교학회 2016 전국추계불교학술대회

치 사

한국불교학을 대표하는 한국불교학회와 동곡-문도회가 <동곡 일타 스님의 생애와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하며 종단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타 대종사는 현대 한국불교사를 이끌어주신 큰 스승이셨고, 잠시도 수행정진의 마음을 놓지 않으신 모든 불자들의 사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불교학계에서는 이러한 선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한국불교학회와 동곡-문도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스님의 수승한 자취를 재조명하고, 공덕을 기리어 현시대에 맞게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사부대중 모두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듯합니다.

오늘 이 학술 논의의 장을 통해, 앞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던 큰스님의 가르침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등불로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7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정신을 이끌어주었던 한국불교가 다

시금 올바른 방향과 힘찬 원동력을 지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열반하신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우리 불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과거형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몸소 실천하신 흐트러짐 없는 수행정신과 용맹정진, 그리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통찰과 깨달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현재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크고 단단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모두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위해 성심으로 진력해주신 동곡-문도회 대표 혜국스님과 한국불교학회 회장이신 성운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고를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취와 공덕으로 우리 사회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나아가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